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 지방관서의 간행양상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ublication Culture in Jeon-ra do in Early Chosun

- Focused on Aspects of Publication by Local Public Offices -

김 소 희 (Kim, So 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5 남원도호부 |
| 2. 행정 구조의 변화 | 3.6 순천도호부 |
| 3. 지역별 간행물의 출판양상 | 4. 간행물의 성격과 특징 |
| 3.1 전주부 | 4.1 간행물의 성격 |
| 3.2 나주목 | 4.2 간행물의 특징 |
| 3.3 장흥도호부 | 5. 맺음말 |
| 3.4 제주목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조선전기 官署에서 이루어진 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관서의 서적 간행은 전주를 중심으로 남원, 순천, 나주, 광주, 금산, 무장, 능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 간행물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유의 경우 권질이 적은 단권본이나, 주석을 생략한 백문본, 내용을 줄여놓은 節略本, 요점만을 뽑아놓은 抄略本 및 간단히 판각이 가능한 서첩류를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셋째,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간행물은 경상도에 비해 당·송 문집과 중국인 法帖의 간행이 성행했고, 조선후기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千字文과 주석이 없는 大文類 서적 및 다양한 주제의 역사서가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要語: 全羅道, 湖南, 完營, 攷事撮要, 出版文化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3-ORS-111000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sh3725@hanmail.net)

접수일: 2015년 6월 9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cultural aspects of the publication by local public offices in early Chosu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ly, the publication by public offices in Jeon-ra do in early Chosun, were prevalent with Jeon-ju being the centre of this active publication. Lots of books were also published in Nam-won, Sun-cheon, Na-ju, Gwang-ju, Geum-san, Mu-jiang, Neung-seong.

Secondly, in order to select the target of publications, small towns mainly published one volume edition called Dan-gwon-bon, or Baek-moon-bon, which skipped footnotes, Jeol-yak-bon, which shortened the contents, Cho-ryak-bon, which only contained the essentials and Seo-cheop-ryu which was made to be easily engraved.

Thirdly, the notable feature of publications in Jeon-ra do in Early Chosun when compared with Kyeong-sang do, was that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from Tang and Song Dynasty and Bup-cheop (a copy book printed from the works of old masters of calligraphy) were very popular.

Also, when compared to Late Chosun, various types of Cheon-ja-moon (1,000 essential Chinese letters), Dae-moon-ryu, books without footnotes, and history books of various topics were published.

Key words: Jeon-ra do, Honam, Wan-Young,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Publication Culture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출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전·후기를 통틀어 영남과 함께 지방의 출판문화를 이끌어 온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간단한 예로 『고사촬요』(1585년본)¹⁾ 책판목록을 보면 경상도에 387종, 전라도에 336종, 황해도에 78종, 평안도에 67종, 강원도에 60종, 충청도에 37종, 함경도에 19종, 경기도에 2종 총 986종이 수록되어 있어, 전라도가 경상도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전에 지방의 지식문화 전파에 일익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의 경우 현재는 충청도에 편입된 錦山(29종)과 전라도에서 분리되어 제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濟州(2종)를 제외하더라도 305종의 책판을 간행하였으므로 경상도와 더불어 전라도가 지방의 인쇄문화를 이끌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고는 금산과 제주 역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행정 체계 하에서 전라도관 찰사의 지시나 상부 보고를 통해 서적을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지역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료로 채택한 『고사촬요』는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현전 유일의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하지만 유교 국가를 지향하던 조선에서 실시한 ‘지방관서 소장 책판목록 실태조사

1) 『고사촬요』는 조선시대 관리나 제야의 선비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백과전서로서 명종 9년(1554) 魚叔權에 의해 처음 편찬되었다. 이로부터 영조 7년(1771)에 徐命膺이 『고사촬요』의 내용을 대폭 개정·증보하여 만든 『고사신서』가 나오기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 속찬과 개수가 이루어졌다. 팔도정도 내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5종의 판본에서만 볼 수 있다. 임란이전 『고사촬요』는 명종 9년본, 선조 1년(1568) 을해자본, 선조 9년(1576) 을해자본, 선조 9년(1576) 을해자본각본, 선조 18년(1585) 목판본을 말한다. 이 중 명종 9년의 초인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현전하는 임란 이전에 간행된 『고사촬요』의 내용과 체제는 거의 동일하다. 판본에 따라 수록된 책판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선조 1년(1568) 을해자본에는 총 557종이, 선조 9년(1576) 을해자본에는 총 558종이, 선조 9년(1576) 을해자본의 번각본에는 559종이, 선조 18년(1585) 목판본에는 988종이다(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초판2쇄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참조).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988종이 아닌 986종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을 참조.

보고서'로서 국가적으로 간행이 허용된 서적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인쇄기술을 이어받아 조선에 들어와서도 왕성하게 서적을 간행했던 사찰 소장 책판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또한 책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목활자로 인출된 서적은 확인할 수 없으며, 1585년(선조 18)을 끝으로 『고사촬요』는 더 이상 책판목록을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85년 이후에 간행된 지방 책판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책판목록에 수록된 사실만을 토대로 조선전기 지방 출판문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이 글은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출판물의 전수 조사가 아닌 『고사촬요』 책판목록을 토대로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서적 간행의 경향성 및 특징을 밝히는데 치중하였고, 책판목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방 관서의 서적 출판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조선시대 각 지역에 관한 출판문화 연구는 1972년 이래로 지속되어 온 팔목할 만한 서지 작업²⁾ 및 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같은 DB를 기반으로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수행한 많은 연구 성과 중 본고의 주제와 부합되는 전라도 지역의 인쇄물 및 인쇄·출판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라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라도 지역 전체를 다룬 연구는 간행 주제 및 간행 방식에 따라 호남지역의 사찰판본, 방각본, 목활자본 등³⁾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 지역에 관한 연구는 완영을 중심으로 한 전주,⁴⁾ 전주 인근

2) 윤병태, 『韓國書誌年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김치우, “攷事撮要의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72). ; 김윤식, “鏤板考”의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78). ; 정형우·윤병태 편, 『韓國册板目錄總覽』(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정형우·윤병태 편, 『韓國의 册板目錄(上), (下), (補遺·索引)』(서울: 보경문화사, 1995).

3)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81). ; 이옥금, “朝鮮朝 湖南 寺刹板에 關한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8). ; 유기석,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1990). ;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2002).

4)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13·14(2002), 131-138. ;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2006), 49-76. ; 최지선,

지역을 포괄하는 전주권,⁵⁾ 남원,⁶⁾ 태인,⁷⁾ 나주,⁸⁾ 제주⁹⁾ 등의 지역 중심의 인쇄문화 고찰에 관한 것과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꽃피우던 방각본에 관한 연구가 있다.¹⁰⁾ 이 외에도 최근의 연구 성과로 현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의 출판문화¹¹⁾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는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간행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출판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지방 출판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간행물의 현황 파악에 치중되어 있고, 단순히 사부분류식 나열로 의미를 도출하다보니 그 지역만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 이외에도 전 지역에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지역만의 출판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다른 시대와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조선시대 湖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65(2005), 81-106.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2011), 433-470.
- 5)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국회도서관보』 20(1983). 이 논문은 전주와 인근의 고부, 고산, 금구, 고창, 금산, 김제, 남원, 무장, 순창, 익산, 용담, 임실, 정읍, 진안에서 간행된 서적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 6) 강혜영, “南原地域 印刷文化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2(2005. 12). ; 옥영정, “南原地域의 木活字印刷 研究,” 『고인쇄문화』 10(2003).
- 7) 유탁일, “湖南地方刊行坊刻本研究,” 『코기토』 20(1981), 353-371. ; 유탁일, “湖南地方刊行坊刻本研究(2),” 『코기토』 23(1983), 37-48. ;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서지학보』 30(2006).
- 8) 안현주,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2), 417-438.
- 9)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開刊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34(2006. 8).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7. 2). ;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고인쇄문화』 8(2001. 11), 219-252. 등이 있다.
- 10) 유탁일,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서울: 학문사, 1985). ;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2010), 92-115.
- 11)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 (1) 全南地域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6(2010. 9), 159-198. ; 안현주, “조선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407-432.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까지 남겨진 책판목록에 대한 기초 작업 후 실물과의 대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책판목록에서 누락된 현전본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전라도 관련 책판목록의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에서 출판물 담당했던 주요 지역을 살펴본 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서적 간행의 시스템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전라도 출판문화의 특징 및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동시기 경상도 지역 출판물과의 대조 및 조선후기 전라도 출판물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지방 출판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행정 구조의 변화

이 장에서는 관서의 서적 간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라도의 행정 구조의 변화를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라도와의 대조를 위해 경상도의 행정 구조의 변화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1018년(현종 9)에 전국을 경기도와 西海道, 交州道, 兩廣道, 전라도, 경상도의 5도로 구분하는 五道兩界의 체제를 갖추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앞서 고려시대 지방 행정 구조는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940년(태조 23)에 州·府·郡·縣의 명칭이 개정되고, 992년(성종 11)과 995년(동왕 14)에 主·부·군·현 및 關·驛·江·浦의 명칭 개정과 10도제를 실시하였으며, 1012년(顯宗 3)과 1018년(현종 9)에는 5도호 75도안무사 및 4도호 8목제가 시행되었다. 1018년에 확정된 전라도는 995년에 실시된 10도제 중 전라도는 江南道와 海陽道가 합쳐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고려 말기의 제도를 토대로 1413년(태종 13)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로 정비하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었는데, 이후로 1645년(인조 23)에 全南道, 1654년(효종 5)에 전라도,

1728년(영조 4)에 全光道, 1738년(1738)에 전라도로 개칭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후 전라도라는 명칭이나 구획은 1896년(고종 33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¹²⁾

1432년(세종 14)에 이루어진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전라도의 행정 구역을 살펴보면, 1府 2牧 4都護府 12郡 31縣으로 정비한 후 道와 郡縣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계수관을 두었다. 계수관은 도의 지시를 관할 군현에 전달하면서 군현을 통괄하는 기구로, 이 당시 전라도는 전주·나주·남원·장흥 네 곳에 계수관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1393년(태조 2)에는 계수관이 전주·나주·광주였는데, 1430년(세종 12) 4월에는 광주를 茂珍郡으로 강등하고 광주목 관할의 장흥을 계수관으로 삼았다.¹³⁾ 고려시대 이후 존속된 계수관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道制 및 군현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의 주현 사이에서 중간기구의 역할을 했다. 계수관은 행정단위로서의 구획상 통칭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찰사의 명을 받아 이를 관할하는 군현의 수령에게 전달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대우이었다. 계수관은 해당 지방에서 가장 호구가 많고 중심이 되는 대우의 수령으로 주변의 군현을 통솔하는 巡察官, 행정관, 군정관의 직임을 지닌 대우의 수령이었다. 그러나 태조 이래로 논의되었던 군현병합은 태종조를 거쳐 세조초에 정비되어 가면서 군현제가 대폭적으로 개혁되었고 道制의 강화가 추진됨에 따라¹⁴⁾ 1466년(세조 12)에 兩首官制가 鎭管制로 바뀌었고 관찰사와 수령이 전임의 외관으로 되고 품계가 승격되고 직권이 강화되었다.¹⁵⁾

12) 전라도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노기춘, “湖南의 地域區分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0(2007. 6), 179-207. ; 유기석, “호남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2007). ;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7).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2011), 433-47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世宗實錄』 地理誌, 全羅道, 長興都護府.

14) 이준희, “鮮初 地方統治體制의 整備와 界首官,” 『동국사학』 15·16(1981), 83-124.

15) 최병운, “전라북도의 연혁 - 성립 과정과 지명 관명 경성의 변천 -,”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전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0), 105.

전라도의 행정구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1府 2牧 4都護府 12郡 31縣이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1부 3목 4도호부 12군 37현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1481년(성종 12)에서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3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전55권)에서는 1부 3목 4도호부 11군 38현으로 개정되었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1부 4목 7도호부 11군 33현으로 변경되었다가,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에서는 1부 4목 7도호부 13군 31현으로 변경되었다. 이상으로 전라도 지역 행정구역의 변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역대 목·도호부·군·현의 변화

전거	목	도호부	군	현
세종실록지리지	나주, 제주	남원, 순천, 장흥, 담양	12	31
경국대전	나주, 광주, 제주	남원, 순천, 장흥, 담양	12	37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 광주, 제주	남원, 순천, 장흥, 담양	14	37
대전통편	나주, 광주, 능주, 제주	남원, 순천, 장흥, 담양, 여산, 장성, 무주	11	33
대전회통	나주, 광주, 능주, 제주	남원, 순천, 장흥, 담양, 여산, 장성, 무주	13	31

이처럼 조선시대에 전주는 줄곧 전라도 지역을 통솔하는 관찰영이 존속했고, 그 밖에는 목, 도호부, 군, 현의 통폐합 및 승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의 대개편으로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년만인 1896년에 13도제로 환원되면서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도 분리되면서 전라북도에 26군, 전라남도에 30군을 두었다가 전라남도는 智島·莞島·麗水·突山을 추가하여 34군이 되었다. 이후 1914년 부·군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1946년에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으며, 1963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이 중 본고의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의 주, 부, 군, 현의 행정구역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전기 전라도 행정 구역

구분	관할 군	관할 현	관할군현
전주부	6군】 익산·김제·고부· 금산·진산·여산	11현】 정읍·홍덕·부안·만경·옥구· 임피·금구·용안·함열·고산· 태인	6군 11현
나주목	1목】 광주목 2군】 영암·영광	8현】 함평·고창·장성·진원·무장· 남평·무안	1목 2군 8현
장흥도호부	1군】 진도	2현】 강진·해남	1군 2현
제주목		2현】 정의, 대정	2현
남원도호부	1도호부】 담양 1군】 순창	9현】 입실·무주·곡성·진안·용담· 옥과·윤봉·창평·장수	1도호부 1군 9현
순천도호부	1군】 보성	7현】 광양·홍양(고흥)·능성·동북· 화순·구례·낙안	1군 7현

전라도의 경우 조선시대 내내 전주에 감영이 설치되었다. 이 때문에 전주는 전라도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서적 간행에 있어서도 완영이 있는 전주가 하나의 거대한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경상도는 여러 차례 감영의 위치가 바뀌면서 중심축이 다음과 같이 이동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에서 1465년(세조 11)까지 상주가 관찰영이 되었다. 이후 1518년(중종 13)에 좌·우도로 분리되었고, 동년에 다시 통합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1592년(선조 25)에 두 개의 영으로 나누어 경주에 좌영을, 상주에 우영을 설치하였다. 1593년(선조 26)에 좌우영을 합하여 성주에 관찰영을 두었고, 1595년(선조 28)에는 다시 좌·우도로 나뉘었다. 1596년(선조 29)에 이를 통합하여 達城인 대구에 영을 설치했다가 1597년(선조 30)에 兵火로 혁파되었다. 1598년(선조 31)에 대구와 성주에 좌·우영을 두었는데, 1601년(선조 34)에 다시 대구부에 감영을 두었다.¹⁶⁾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경상도 지방행정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부 1대도호부 3목 6도호부 14군 40현 총 65개 지역에 관청이 설치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16) 한국고전종합DB,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慶尙道, 大邱都護府.

<표 3> 조선전기 경상도 행정 구역

구분	관할 군	관할 현	관할군현
경주부	4군】 울산·양산·永川· 홍해	6현】 청하·영일·장기·기장· 동래·언양	4군 6현
안동대도호부	2도호부】 영해·청송 3군】 예천·榮川·풍기	8현】 의성·봉화·진보·군위· 비안·예안·영덕·용궁	2도호부 3군 8현
대구도호부	1도호부】 밀양 1군】 청도	7현】 경산·하양·인동·현풍· 의흥·영산·창녕	1도호부 1군 7현
상주목	1목】 성주 1부】 선산 1군】 금산	5현】 개령·지례·고령·문경· 함창	1목 1부 1군 5현
진주목	4군】 합천·초계·함양· 곤양	9현】 사천·남해·삼가·의령· 하동·산음·안음·단성· 거창	4군 9현
김해도호부	1도호부】 창원 1군】 함안	5현】 거제·칠원·진해·고성· 웅천	1도호부 1군 5현

3. 지역별 간행물의 출판양상

『고사촬요』에 수록된 986종의 책판 목록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책판을 많이 소장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언했듯이 경상도 387종, 전라도 336종, 황해도 78종, 평안도 67종, 강원도 60종, 충청도 37종, 함경도 19종, 경기도 2종이다. 연구 진행에 앞서 전체 수량인 986종은 기존 연구에서는 988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조, 전라도 금산조에 수록된 ‘日記’와 ‘小學’은 두 종이 아니라 『新增圖像小學日記古事大全』 1종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책판목록에 수록된 총 수량은 988종이 아닌 986종으로 정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⁷⁾

17)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 또는 『소학일기』는 당시에는 ‘일기소학’이라는 서명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암일기』에서도 ‘일기소학’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책판 목록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존에 전라도 전주조의 『진서언해』, 『절구』라고 파악했던 서적이 실물 발굴을 통해 『진서』, 『언해절구』로 밝혀진 연구(남권희, “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8(1999. 8), 204-209.)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행해지는 서적 간행의 유형으로는 왕명에 의해 새롭게 서적을 판각하는 경우,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서적을 토대로 번각한 후 책판을 중앙에 상송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보관하는 경우, 관찰사가 개인적인 의도로 간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⁸⁾ 이러한 서적 간행 시스템은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각 도에서 시행되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 절에서는 상기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행정 구역에 따라 전주부, 나주목, 장흥도호부, 제주목, 남원도호부, 순천도호부의 관할 하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행정구역별 간행이 활발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간행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행정 구역에 따른 주요 간행지역

전주부			나주목			장흥도호부	남원도호부			순천도호부	
120종 (36%)			86종 (26%)			10종 (3%)	65종 (19%)			53종 (16%)	
전주	금산	태인	나주	광주	무장	장흥	남원	담양	순창	순천	능성
67	28	8	28	32	13	9	38	9	7	24	12
府	郡	縣	牧	牧	縣	도호부	도호부	도호부	郡	도호부	縣

3.1 전주부

먼저 전주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모두 120종이며, 그 중 府 67종, 4개郡 31종, 7개縣 22종이다. 군현 단위의 간행은 4개군의 경우 금산 28종, 익산·김제·고부 각 1종이며, 7개현의 경우 태인 8종, 정읍·부안·금구 각 3종, 임피·고산 각 2종, 옥구 1종이다. 전주부의 관할 하에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도

도 들 수 있다. 두 종에 지나지 않는 사례이지만, 책판목록에는 서명을 축약하거나 이처립 당시에 통용되던 서명을 적기하여 현전본이 없는 경우, 어떠한 책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수량과 정식 서명에 관해서는 현존과의 대조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8) 옥영정(2011), 456-459.

금산군이 광주목(32종)·나주목(28종)·순천도호부(24종)와 같은 목이나 도호부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에서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전주는 지방의 군사·행정·문화의 중심지인 감영이 소재했던 곳으로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매우 활발하게 서적을 간행하였다. 감영에서의 출판은 인근의 고을에도 교육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남원, 태인 등지에서 인쇄문화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다.¹⁹⁾

전주에서 간행된 서적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법률서, 농서, 의서를 들 수 있다. 먼저 법률서의 경우 전라도 지역에서는 모두 7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 2종이 전주에서 간행되었다. 전주에서 간행한 『사송유취』, 『율학해이』 이외에도 광주목(광주·무안), 남원도호부(남원·담양·창평)를 중심으로 『대명률』(광주), 『대명률해율』(담양), 『경제육전』(창평), 『무원록』(남원), 『당음비사』(무안)가 간행되었다. 『율학해이』는 경상도의 『대명강해율』, 충청도의 『율학변의』와 함께 1466년(세조 12)에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다. 전주에서 간행한 법률서의 간행량은 경상도 경주의 4종, 강원도 원주의 3종보다는 뒤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경주의 경우 『講解律』, 『無冤錄』, 『小全大明律』, 『元六典』과 같이 중국이나 조선초의 법률서를 번각하던 수준이었던 반면 전주의 경우에는 당시의 실정을 고려한 서적이 편찬·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예로 金伯幹이 편찬한 『사송유취』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대명률』,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등의 여러 법률서에서 당시의 실정에 맞게 송사 해결에 필요한 조항들을 뽑아놓은 서적으로 당대는 물론 이후에 편찬되는 각종 목민서의 토대가 되었다. 김백간은 이 책을 편찬한 후에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金泰廷이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자 이를 계기로 이 책에 근거해 소송을 처리해보고서 적합하다고 여겨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전주에서 간행하였다.²⁰⁾ 이 책의 발문은 당시 광주목사로 있던 丁焯(1524-1609)이 작성했는데, 그는 1571년에 능성현령을 역임할 적에 전라도에서 강직하고 명백하

19) 옥영정(2011), 248.

20) 丁焯, 『晩軒集』 卷2, 司訟錄跋.

계 사건을 심리하여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9인의 관리로 선정되었던 인물이었다.²¹⁾ 『사송유취』가 간행된 시기는 발문이 1585년 10월에 작성된 점, 김태정이 전라도관찰사에 재직했던 시기가 1585년(선조 18) 1월에서 이듬해 2월이라는 점에서 1585년 10월경으로 추정된다.²²⁾ 그런데 이 책은 『고사촬요』 전주조 책판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며, 조선 후기의 서목인 『책판치부책』,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 『완영책판목록』에서는 전주조의 『사송유취』 대신에 광주조의 『詞訟錄』만이 기재되어 있다. 광주조의 『사송록』은 『사송유취』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정염이 작성한 『사송유취』의 발문 제목이 ‘사송유취발’이 아닌 ‘司訟錄跋’이라는 점에 있다.²³⁾ 이 때문에 『사송유취』를 『사송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의 『사송유취』 책판이 광주목사였던 정염과의 관련성 때문에 16세기 후반 이후에 광주로 이동된 것인지, 전주의 『사송유취』를 저본으로 광주에서 번각하거나 새롭게 간행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서의 경우 전라도에서는 『농사직설』, 『농서』, 『蠶書』 등 7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 4종이 전주에서 간행되었다. 『농사직설』은 전주와 나주목의 무장 및 남원도호부의 창평²⁴⁾에서, 『농서』는 전주와 남원도호부의 담양에서, 『잠서』는 전주에서 2종이 간행되었다. 경상도에서도 7종의 농서가 간행되었는데, 전주는 가장 많은 농서를 간행했던 안동보다 1종이 많다. 또한 『농사직설』은 전라도에서만 간행되었던 반면, 경상도에서는 안동과 함천을 중심으로 『농상집요』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서 시행한 지역별 서적 분배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의서의 경우 전라도에서 총 28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 전주에서만 13종이 간행되었다. 남원 4종, 금산·나주 각 3종, 능주·담양·곡성·광양·광주에서 각 1종에 비해 간행량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21) 『선조실록』 4년(1571) 6월 20일 1번째기사.

22) 丁焞, 『晩軒集』 卷2, 司訟錄跋.

23) 丁焞, 『晩軒集』 卷2, 司訟錄跋.

24) 창평에서 간행한 『농사직설』은 책판목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청분실서목』의 기록을 토대로 추가하였다.

의서를 간행했던 진주보다도 3종이 많다.

이상과 같이 완영이 소재한 전주에서는 지방민의 통치에 필요한 법률서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농서와 의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서적은 대체로 감영에서 중앙의 명을 받아 간행된 것으로 완영은 물론 경상도의 경주, 안동, 진주 등 부, 대도호부, 목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금산에서는 전라도 내 군현 단위의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전라도관찰사의 명에 의해 간행된 서적이 비교적 많았다. 예를 들면, 1400년(정종 2)의 『柳巷先生詩集』, 1431년과 1452년의 『음주전문춘추팔례시말좌전구두직해』, 1440년(세종 22)의 『樊川文集』, 1447년(세종 29)의 『宛陵梅先生詩選』, 1452-1455년의 『梅軒先生集』 등이다. 『유항선생시집』은 중앙의 명을 받은 전라감사 성석용이 금산군수 이통훈에게 지시하여 간행되었고, 『좌전』(1431년)은 전라감사 申槩 [1430.4-1431.2 재직]가 금산군수 許安石에게, 『번천문집』은 전라감사 權克和가 經歷 李蓄과 협의한 후 금산군수 李賴에게, 『완릉매선생시선』은 전라감사 李思任이 도사 柳孟敷와 상의한 후 금산군수 成自諒에게, 『좌전』(1452년)과 『매헌선생집』은 전라감사 金連枝 [1452.2-1454.5 재임]가 금산군수 權技²⁵⁾에게 명하여 간행된 책이다. 이상을 통해 관찰사가 왕명에 의해, 또는 사적으로 금산군수에게 지시하여 책을 간행하였고, 때로는 관찰사가 금산군수에게 간행을 명하기 전에 經歷이나 都事와 협의를 거쳐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금산군수가 관찰사의 명을 받고 서적을 간행하는 경우 이외에도 군수가 직접 전라감사에게 간행 허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1566년(명종 21)에 금산군수 李義臣이 전라도관찰사 柳昌門의 허가를 받아 『新增圖像小學日記古事大全』²⁶⁾

25) 『고사촬요』 책판목록에는 1종의 『左傳』만 수록되어 있다.

26) 이 책은 明代에 虞詔가 纂集하고 管瓘가 增校한 후 胡瑛이 圖像을 그려놓은 서적으로, 아동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옛 군자들의 格言, 懿行 등의 故事를 그림과 글로 표현한 책으로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규장각에 낙질 1책(권1-4)이 전할 뿐이며, 일본 봉좌문고에 10권 2책의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봉좌문고 소장본은 辛璉이 소장했던 수택본이다. 권말에는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柳昌門, 奉訓郎都事兼春秋記注官 李士英, 奉正大夫行錦山郡守全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兼春秋館編修官 李義臣, 謄寫學生 任施仁, 畫工 朴碩凱, 校正 幼學 金淳文”과 같은 간행기록이 보인다(천혜

을 간행한 경우이다. 1568년(선조 1) 2월 13일에 이의신은 서울에 머물던 유희춘을 방문하여 자신이 간행했던 이 책을 추천하였고,²⁷⁾ 이에 나흘 뒤에는 유희춘이 손식[자: 敬輿]으로부터 책을 전해 받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중앙관청이나 관찰사의 명령이 아닌 금산군수의 요청에 따라 간행된 서적이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지식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주부에서는 태인현에서의 서적 간행도 두드러진다. 이 곳은 조선전기에는 현 단위의 고을 중에서 무장현 다음으로 많은 출판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자, 조선 후기에는 방각본 출판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곳이기도 하다. 태인에서는 신숙주의 손자인 申從濩의 『三魁堂集』과 李荇의 『容齋集』 등과 같은 조선 인물의 문집류와, 『喪禮抄錄』과 같은 抄集本 예서류와, 퇴계의 병풍서 등의 법첩류 및 『팔도지도』와 같은 지도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적을 간행했다. 『삼괴당집』의 간행시기는 태인현감으로 부임했던 申從濩의 아들 申潛(1491-1554)이 6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태인에는 1549년에 세워진 그의 선정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잡이 재직하는 동안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괴당집』과 관련하여 申叔舟·申澍·신중호 등의 시와 문을 수록하고 있는 『고령세고』²⁸⁾ 1549년 봄에 태인현감과 訓導 李世筌 등의 교정을 거쳐 간행되었다.

3.2 나주목

나주목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총 86종이며, 그 중 나주목 28종, 광주목 32종, 2개군에서 3종, 8개현에서 23종이 간행되었다. 2개군의 경우 영암 2종, 영광 1종이다. 8개현의 경우 무장 13종, 남평 3종, 무안·함평 각 2종, 고창·

분,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지식산업사, 2003), 136-138 참조). 이 책을 소장했던 신륵은 순창군수로 재임할 당시 미암 유희춘에게 『대학』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미암에게 증여했던 이 책은 『고사촬요』에는 순창 조에 보이는 『大字大學』으로 판적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인출한 후 지인에게 서적을 증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7) 柳希春, 『眉巖日記』 1568년(선조 1) 2월 13일: “錦山郡守李義臣君禮亦來, 相與道舊, 又語『日記小學』三册可觀.”

28)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서지학보』 30(2006), 73.

장성·진원 각 1종이다. 이 지역 간행의 특징은 전주와 남원과 달리 나주목과 광주목이라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서적이 간행되었다는 점과 현단위인 무장현에서의 간행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개별 지역으로 살펴보면 나주와 광주는 남원에 비해 간행량은 적지만, 부·목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본다면 남원도호부에 비해 간행량이 월등이 많다.

나주와 광주에서의 간행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간행물을 주제별로 파악해보면, 정부는 나주 7종·광주 8종, 사부는 나주 1종·광주 5종, 자부는 나주 9종·광주 9종, 집부는 나주 11종·광주 10종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부를 제외하고는 두 지역 간에 주제별로 균등하게 서적을 안배·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주목에서 간행한 서적 중 특징적인 부분은 소학류의 간행을 들 수 있다. 전라도에서 간행한 소학류는 총 32종인데, 이 중 전주부 7종, 남원도호부 5종, 순천도호부 6종, 장흥도호부 2종을 간행했던 것에 비해 나주목은 무려 12종을 간행했다. 12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주 3종, 광주가 4종, 무장이 3종, 무안 1종, 영암 1종으로 나주목 내 중요 출판 지역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주목 간행물의 또 다른 특징은 나주의 『村談解頤』, 『太平閑話滑稽傳』과 같은 수필류의 서적과 광주의 『笑海叢珠』와 같은 소설류의 서적을 들 수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소설류로는 『效顰集』과 『剪燈餘話』도 있는데, 두 책 모두 남원도호부가 관할하는 순창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비해 경상도는 경주를 중심으로 고성·영천·초계·진주·함양·의성 등 여러 지역에서 약 11종에 달하는 수필류와 소설류의 서적을 간행했다.

무장은 나주목에서 관할하던 지역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편입된 지역으로, 현재는 고창군에 속해있다. 이곳에서는 『천자문』이나 『유합』과 같은 아동의 학습 교재 또는 초학자의 입문서를 비롯하여 『적벽부』와 『난정기』 및 『병풍서』 등의 법첩류의 간행이 많았고, 이 외에도 禪雲寺 등의 사찰을 통해 불경의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당시 선운사에서는 불경의 간행은 물론 민간에서 불경 이외의 책을 의뢰받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571년(선조 4) 6월 10일에 서리 金彦轍이 程愈의 주석이 달린 『小學』을 가지고 유희춘을 찾아와서

선운사에서 간행해 주기를 부탁한 경우를 들 수 있다.²⁹⁾ 현 단위에 불과한 지역에서 도호부인 장흥과 담양, 군단위인 순창을 뛰어넘어 전라도 내에서 7번째로 많은 간행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사찰 등을 통해 간행을 위한 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장흥도호부

장흥도호부 관할 하에서는 총 10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 장흥이 9종, 해남현이 1종이다. 조선후기에 장흥은 현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나주, 화순, 순천, 보성에 이어 서적을 많이 간행하였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남 지역 출판의 중심지가 되었다.³⁰⁾ 그러나 책판목록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조선전기에는 전주, 남원, 광주, 금산, 나주, 순천, 무장, 능성에 비해 저조한 출판 현상을 보인다.

이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金麟厚의 문집인 『河西集』을 들 수 있다. 『하서집』은 저자의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趙希文이 유문을 수집하고 白光勳이 抄書하고 저자의 門人 梁子澂과 申覺 등의 교정을 거친 후 전라감사 宋贊의 허가를 받아 1568년(선조 1)에 장흥에서 간행되었다.³¹⁾ 그러나 이 책판은 장흥조가 아닌 장성조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장흥과 장성에서 각기 『하서집』을 간행했다고 보기보다는 장흥에 소장되어 있던 책판이 1568년에서 1585년 사이에 김인후의 고향이 있는 장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에서 간행한 근거로는 조희문이 당시 장흥부사의 직책으로 책을 간행했다는 점과, 이후 조희문이 김인후의 절친이자 책의 편찬과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³²⁾ 유희춘에게 이 책을 증여했다는 점³³⁾ 및 1년 후인 1569년 12월

29) 柳希春, 『眉巖日記』, 1571년(선조 5) 6월 10일, “朝, 書吏金彥轍, 持程愈註『小學』, 請開刊于禪雲寺.”

30) 안현주(2010), 430.

31) 한국고전DB, 『河西全集』 해제.

32) 柳希春, 『眉巖日記』, 1567년(선조 즉위) 12월 23일, “以河西子贈余二詩, 寫送校正處.”

12일에는 새로 장흥부사에 임명된 柳忠貞 또한 유희춘에게 『예기천견록』 11책과 함께 이 서적을 증여했다는 점³⁴⁾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서집』은 1568년에 장흥에서 처음 간행되어 1569년 12월까지의 여전히 장흥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6여년이 지난 1576년 5월에 조희문이 작성했던 서문 첫 면에 ‘성인’이라고 과찬한 내용이 문제가 되자,³⁵⁾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데 이 때 장흥 부사가 아닌 장성 현감에게 요청³⁶⁾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하서집』 책판은 1570년에서 1576년 사이에 장흥에서 나무목 관할의 장성으로 책판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에서는 『하서집』 이외에도 이 책의 저자인 김인후가 편찬한 한시 초학교재인 『百聯抄解』도 간행하였다.

3.4 제주목

책판목록 상에서 확인되는 제주목 간행 서적은 『浣花流水』와 『동국사략』 2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1411년의 『논어』(개인소장본), 1418년에 재미자본을 번각한 『예기천견록』, 1555년의 『牧民心鑑』(개인소장본), 1572년의 『石川詩集』, 1574년의 『赤壁賦』³⁷⁾도 제주목에서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목

33) 柳希春, 『眉巖日記』, 1568년(선조 1) 8월 8일. “長興府使趙君希文送新印『河西子集』七冊來, 見之如獲至寶, 喜不可言.”

34) 柳希春, 『眉巖日記』, 1569(선조 2)년 12월 21일. “朝, 長興府使柳公忠貞, 佯送『禮記淺見』十一冊・『河西集』冊・鹽銀魚四十尾來.”

35) 柳希春, 『眉巖日記』, 1576년(선조 9) 5월 12일. “向暮, 宣陵金從虎, 自長城過謁, 余對夕飯. 因議『河西金麟厚集』趙希文序初面過褒以聖之繆當削去, 從虎亦以爲然, 此議自李公陽元發之, 實趙希文之妄, 而李伯春陽元之公議也.”; 1576년 5월 19일, “昨, 以趙希文所作『河西集序』起頭云, 大道有不宰之功, 至德著無迹之化, 擬聖僭妄, 當削之意, 通于崔監司應龍, 此議自李公陽元發之也.”

36) 柳希春, 『眉巖日記』, 1576년(선조 9) 5월 13일; 1576년 7월 10일.

37)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2), 49-68에 따르면 15세기에 『예기천견록』, 『檢屍狀式』, 16-17세기에 47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15세기의 간본 중 『예기천견록』, 『적벽부』의 현전본을 언급하였다. 16-17세기 간본 47종 중 현전본은 모두 17세기에 이루어진 간본이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의 서적 간행 방식은 『檢屍狀式』(1439년경)의 경우 중앙에서 각 도의 관찰사에게 간행을 명할 적에 전라도관찰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주목사에게 명을 내려 간행하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다.³⁸⁾ 이 외에 제주목에서는 전라도관찰사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제주목사나 제주판관의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서적을 간행했는데, 이러한 증거로 이곳에서 간행한 서적의 간행 기록이 『논어』의 경우 “都按撫使判牧使事嘉善大夫兼勸農管學兵節制使金廷儒, 監刻 前彭信校尉虎翼巡衛司尤領中郎將夫孫式” 등으로, 『목민심감』의 경우 “嘉善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金秀文, 奉直郎濟州牧判官節制都尉兼監牧李善源” 등으로, 『식천시집』의 경우 “通政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蘇滄, 中訓大夫行濟州牧判官濟州鎮管兵馬節制都尉兼監牧李舊”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5 남원도호부

남원도호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총 65종으로, 그 중 남원도호부 38종, 담양도호부 9종, 순창군 7종, 7개현에서 11종이 간행되었다. 7개현은 옥과·창평·진안·운봉 각 2종, 장수·용담·곡성 각 1종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남원을 중심으로 서적이 간행되었고, 일부 담양도호부와 순창군에서 보조적으로 서적을 간행하였다. 남원지역 간행물 중 『救急簡易方』은 ‘관찰사가 도와 군·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에 간행을 지시하라’는 왕명에 따라 간행된 책이다. 이는 1489년(성종 20)에 중앙에서는 새로 간행한 『구급간이방』 9권을 널리 배포할 목적으로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해당 도에서 개간하고 계수관이 찍어내는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26일에 ‘각도에 『구급간이방』을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개간하라’³⁹⁾고 명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전라도 관찰사가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간행하는 한편, 이 당시 계수관의

38) 『세종실록』 21년(1439) 2월 6일 5번째기사.

39) 『성종실록』 20년(1489) 5월 30일 2번째기사 ; 『성종실록』 20년(1489) 9월 26일 4번째기사.

역할을 담당했던 남원, 나주, 광주 중에서도 특별히 남원에 간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남원에서 간행한 『표해록』은 원래는 나주에서 간행하려고 했던 책이었다. 처음에 유희춘이 전라감사 李陽元에게 간행을 부탁하자 감사가 나주에 간행을 지시하겠다고 했지만,⁴⁰⁾ 감사가 교체되면서 간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후 1573년(선조 6) 6월 25일에 한양에 머무르던 유희춘은 전라감사 이중호를 전별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표해록』의 간행을 부탁했다. 아울러 그는 남원에서 간행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⁴¹⁾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20일에 이미 남원에서 인출이 완료되었다. 유희춘이 처음 이양원에게 간행을 부탁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외조부의 기록인 『표해록』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⁴²⁾ 이상의 사례를 통해 관찰사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서적을 간행해 줄 뿐만 아니라, 관찰사가 간행처를 직접 결정했고, 때로는 지인이 요청한 지역에 간행을 지시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원조에 보이는 『家禮』는 명종 18년(1563)에 전라도관찰사 金德龍의 지시에 따라 간행된 서적이다. 그런데 실은 이 책은 남원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곡성현 감 蘇邈가 곡성현에서 간행한 책으로, 곡성을 관할하는 남원도호부로 책판이 옮겨진 것이다. 남원도호부는 법률서, 교화서, 지리서, 法帖, 의학서, 성리서, 중국인 저자의 문집 등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간행했지만 사서삼경에 있어서는 『집주논어』 책판만 소장하고 있었기에, 당시 수요가 높았던 『가례』를 곡성에서 간행하도록 한 후 곡성을 관할했던 남원도호부로 책판을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순천도호부

순천도호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총 53종으로, 그 중 순천도호부 24종, 보성군 6종, 광양현 2종, 능성현 12종, 동북현 3종, 구례현 5종, 낙안현

40) 柳希春, 『眉巖日記』, 1571년(선조 5) 11월 2일.

41) 柳希春, 『眉巖日記』, 1573년(선조 7) 6월 25일.

42) 柳希春, 『眉巖日記』, 1573년(선조 7) 7월 20일 ; 1573년(선조 7) 11월 21일.

6종이 간행되었다. 순천도호부의 경우 경부 15종, 사부 8종, 자부 23종, 집부 8종으로 자부의 서적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경부가 그 뒤를 이었다. 먼저 경부를 살펴보면 전라도에서 모두 74종이 간행되었고 그 중 사서류는 총 16종이 간행되었다. 사서류를 간행한 지역을 행정 구역별로 세분하면 전주부 6종, 나주목 2종, 장흥도호부 1종, 남원도호부 3종, 순천도호부 4종으로 순천부가 나주목이나 남원도호부에 비해 많은 간행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자부 중 간행이 많은 유가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총 53종이 간행되는데, 그 중 전주부 16종, 나주목 11종, 남원도호부 14종, 순천도호부 11종, 장흥도호부가 6종이다. 순천부는 나주목과 유사한 간행량을 보이며, 순천이 7종, 능성이 2종, 구례·보성이 각 1종으로 순천에서의 간행이 월등히 많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순천부는 남원도호부, 나주목, 광주목에 비해 간행량은 적지만 사서류와 유가류에 있어서는 이들 지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순천에서 간행한 서적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유가류에 포함된 『정씨유서분류』, 『거업록』,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 『성리유편』의 4종이 모두 1564년에서 1566년 사이에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李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정은 상기한 서적 이외에도 순천부사 재임 중에 『경현록』, 『염락풍아시』, 『거업록』 등의 서적도 간행하였다.⁴³⁾ 그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서적 간행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전라도관찰사였던 南宮忱[1564.윤2월-1565.3에 전라감사로 재직]의 도움이 컸다. 이러한 사례로 남궁침이 순시를 하다가 순천에 머물렀을 때 이정이 그에게 『정씨유서분류』를 간행할 뜻을 비추자, 감사가 여러 읍에서 판재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도움에 힘입어 불과 몇 달 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성리유편』을 간행하기도 하였다.⁴⁴⁾

순천도호부에서 간행한 서적 중에는 능성에서 간행한 『장자』와 같이 도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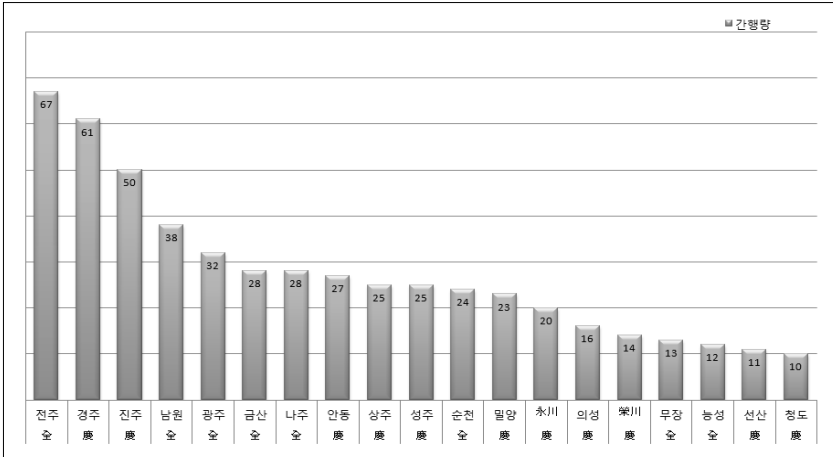
43) 안현주(2010), 194에서 이미 『경현록』,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 『염락풍아시』, 『정씨유서분류』, 『성리유편』, 『거업록』 등이 그 당시 순천부사였던 李楨의 주도하에서 순천부에서 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44) 『龜巖集』 卷1, 跋, 性理遺編補錄跋.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광주의 『陰附經』과 더불어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가류 서적을 간행한 지역이다. 순천에는 또한 좌수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전라도 전 지역에서 불과 4종밖에 간행되지 않은 병가류 서적의 간행도 담당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관서에서의 간행은 감영이 소재한 전주를 중심에 두고 도호부인 남원과 순천, 牧인 나주와 광주가 도와 군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발하게 서적을 공급했고, 이외에도 전주부에 소속된 금산군, 나주목에 소속된 무장현, 순천도호부에 소속된 능성현 등이 도호부나 다른 군에 비해 서적 간행이 활발했음을 확인하였다.⁴⁵⁾

986종의 지역별 책판 중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10종 이상을 간행했던 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별 간행물 비교

45)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1)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6(2010. 9), 159-198에서도 광주, 나주, 순천, 능성, 담양, 장흥, 보성의 순으로 서적을 많이 간행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림 1>을 다시 전라도와 경상도로 구분한 후, 간행 횟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전주, 남원, 광주, 금산, 나주, 순천, 무장, 능성 이상 8개처
경상도: 경주, 진주, 안동, 상주, 성주, 밀양, 永川, 의성, 榮川, 선산, 청도 이상 9개처

이를 보면, 전라도가 전주라는 한 축을 중심으로 남원, 광주, 금산, 나주, 순천, 무장, 능성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반면, 경상도는 경주와 진주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경주부에 소속된 永川郡, 안동대도호부, 상주목, 상주목의 관할의 성주목에서 주로 서적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도호부는 2종의 책판만 기재되어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이곳에 관찰영이 들어서면서 점차로 경상도 지역 내에서 가장 왕성한 출판 지구로 부상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서울, 전주, 안성과 더불어 4대 방각지역의 하나로서 두각을 나타냈었다. 밀양도호부는 대구를 대신하여 23종의 책판을 간행했는데, 토산품으로 종이[紙]를 생산하고 다편[楮]을 재배했던 곳인 만큼⁴⁶⁾ 서적 간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전기에는 밀양이 대구를 대신해 인근 지역 사회에 서적을 보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주요 간행처 중 특징적인 부분은 전라도에서와 같이 밀양군, 永川郡, 의성현, 榮川郡, 청도군과 같은 군현 단위의 관서에서 안동대도호부 소속의 영해도호부(2종), 상주목 소속의 청송도호부(2종), 김해도호부(6종), 김해도호부 소속 창원도호부(5종)와 같은 도호부에 비해 서적 간행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 지방 관서의 일반적인 서적 간행은 감영의 주도하에 일부 목과 도호부 등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라도의 경우 군현단위인 금산군, 무장현, 능성현에서도 매우 간행이 왕성했고, 경상도의 경우 밀양, 永川, 의성, 榮川, 청도가 각 지역의 목이나 도호부와 비슷한

46)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密陽大都護府

수준에서 또는 이보다 우월하게 간행되는 경우도 확인하였다. 이들 지역이 대읍이나 다른 군현 단위의 고을에 비해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는 차후 개별 지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간행물의 성격과 특징

이 장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서적이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는 현상을 통해 간행물의 대상이 지역의 규모 및 형편에 따라 달라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전기 전라도 지방 관서 출판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타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 및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의 간행물과의 대조를 시도하였다.

4.1 간행물의 성격

기존에는 ‘경부-사서류’에 포함된 대학이 간행된 원인이 유교적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사대부들의 필독서로서 수요가 높았다는 틀 안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한 지역의 출판문화의 특질을 규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통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나의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물력이 소요되므로 소읍이나 간행 환경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아무 서적이나 선불리 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각도의 감사가 제멋대로 서적을 간행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서적을 또 다시 간행함으로써 재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책판 현황을 기록하는 서책치부의 법을 정하였다.⁴⁷⁾ 따라서 각 도의 관찰사를 비롯하여 수령들은 어떤 서적을 간행할지, 어디에서 간행할지를 두고 고심해야 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하에 동일한 주제의 서적이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간행되었는지를 살펴

47) 『세종실록』 14년(1432) 8월 3일(기축) 2번째기사.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읍의 경우 권질이 적은 單卷本이나, 주석을 생략한 白文本, 내용을 줄여놓은 節略本, 요점만을 뽑아놓은 抄略本 및 간단히 판각이 가능한 書帖類를 중심으로 간행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먼저 각 지역에서 간행한 동일한 서적 중 조선시대 내내 수요가 많았던 四書五經을 사례로 읍의 대소에 따라 간행물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것이 전라도 지역의 특수한 현상인지 조선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기 가장 많은 출판을 했던 경상도 지역과 대조하였다.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사서오경은 총 36종이다. 여기에 제3장의 4절에서 밝힌 제주목에서 간행한 2종을 포함하여 총 38종을 대상으로 주제와 간행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논어: 집주논어(남원), 논어(제주, 장흥), 논어대문(순천)
- 맹자: 맹자(능성), 맹자대문(진주)
- 대학: 대학(광주, 순천, 전주), 흑문대학(광주), 대학대문(정읍), 대자대학(순창)
- 중용: 중용(금산), 중용집략(전주), 중용언해(광양), 중용대문(정읍)
- 논어·맹자: 논맹홍문(담양)
- 역: 주역(전주, 나주), 주역대문(순천)
- 서: 서전(남평), 서전대문(부안)
- 시: 시전(고부), 시전대문(부안)
- 예기: 예기(전주), 예기대문(순천), 예기친견록(장흥, 제주), 예집(나주향교), 의례도(나주), 주문공가례(광주), 초가례(함평), 가례(남원), 상례초집(광주목), 상례초록(태인)
- 춘추: 좌전(금산), 춘추(보성), 호진춘추(전주)

위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서적이라도 분량에 따라 간행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분량이 많은 『주역』·『호진춘추』·『예기』는 전주에서, 『좌전』은 금산에서, 『집주논어』는 남원에서 간행되었고, 주석을 생략하고 대문만 수록한 『서전대문』과 『시전대문』은 고부에서, 『대학대문』이나 『중용대문』은 정읍에서, 상례나 가례의 일부 내용만을 뽑아 놓은 『喪禮抄錄』은 태인에서, 『抄家禮』는 함평에서 간행되었다. 이 말은 전라도 지역에서 출판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전

주, 금산, 남원 등지에서는 분량이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던 반면 태인이나 함평 및 고부 등과 같은 소읍에서는 기본 텍스트에서 분량을 줄인 대문본과 초집본을 간행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5>는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한 사서오경을 지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5>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사서오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역	서	시	춘추	예기	횃수
전주부 (14회)	전주부		○	●	●	●			●	●	6
	금산군				●				●		2
	고부군							●			1
	부안현						○	○			2
	정읍현			○	○						2
	태인현									○	1
나주목 (9회)	나주목					●				●●	3
	광주목			○●						●○	4
	함평현									○	1
	남평현						●				1
장흥도 (1회)	장흥도								●	1	
남원도 (4회)	남원도	●								○	2
	담양도		●								1
	순창군			○							1
순천도 (7회)	순천도	○		●		○				○	3
	보성군							●			1
	광양현				●						1
	능성현		●								1
제주목 (2회)	제주	●							●	2	

○는 백문본·초략본, ●는 집주본임.

조선전기 전라도에서는 총 38종의 사서오경이 간행되었는데, 경상도는 45종, 황해도는 15종(해주 13종, 수안 2종), 평안도는 13종(평양), 강원도는 6종(원주),

충청도는 5종, 함경도는 4종(회령, 안변 각 2종)을 간행하여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약 7종 정도가 적지만, 다른 도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간행이 있었다. 이상의 각 도별로 사서오경의 간행량은 <표 6>과 같다.

<표 6> 도별 사서오경의 간행량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함경	평안	황해	합
총경	-	-	-	2	1	-	-	1	4
논어	-	-	1	2	4	1	-	1	9
맹자	-	1	1	3	2	-	1	1	9
대학	-	2	1	3	6	1	1	3	17
중용	-	1	1	7	4	1	2	3	19
역	-	-	-	3	3	-	2	1	9
서	-	-	-	4	2	-	2	2	10
시	-	-	-	4	2	-	2	2	10
예	-	-	1	12	11	1	1	1	27
춘추	-	-	-	5	3	-	2	-	10
합		5	5	45	37	4	13	15	

전국적으로 볼 때 예학서가 27종으로 가장 많고, 중용(19종)과 대학(17종)이 다음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그 다음은 서·시가 각 10종, 논어·맹자·주역이 각 9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예학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수치는 전라도 11종, 경상도 12종으로 타도에 비해 두 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간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용 역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많이 간행되었고, 황해도에서도 논어·맹자·주역·예학서에 비해 많이 간행되었다. 중용은 사서류 중 가장 많이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팔도를 통틀어 유일하게 모든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책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전본의 새로운 발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지만, 관서에서 간행한 서적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팔도 중 경상도에서 간행한 45종을 대상으로 주제별·간행방식별·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 논어(밀양, 진주)
맹자: 맹자(성주, 산음), 맹자대문(영천), 소전맹자(대구)
대학: 대학(선산, 성주, 경주)
중용: 중용(선산, 경주, 진주, 남해), 중용혹문(선산)
역: 주역(진주), 소전주역(성주), 계몽전의(永川)
시: 시전(예천, 밀양), 시대문(榮川), 홍범(밀양)
서: 상서(경주), 서대문(榮川)
예: 가례(상주, 대구, 永川, 현풍, 남해), 관혼상제의(경주), 봉선잡의(경주, 하동), 예기(밀양), 의례도(밀양), 주례(청도), 馮氏家禮集說(진주)
춘추: 춘추대문(영천), 춘추호씨전(경주), 소전좌전(성주), 회통춘추(진주), 부록춘추(성주)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주 9종, 밀양 6종, 성주·진주 각 5종, 榮川 4종, 선산 3종, 남해·대구·永川·하동 각 2종, 산음·상주·예천·청도·현풍 각 1종이 간행되었다. 논어와 대학을 제외한 전반적인 간행 수량이 전라도에 앞서 있다. 전라도는 대학, 경상도는 중용이 많이 간행되었고, 두 지역 모두 사서오경 중에서 예학서적의 간행이 월등히 많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경상도는 大文本이나 抄略本 형태의 책이 榮川에서 간행된 『시대문』·『서대문』만 기재되어 있지만, 전라도는 대문본 4종, 초략본 2종 총 6종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⁴⁸⁾ 예학서의 종류에 있어서도 두 지역이 차이를 보이는데, 전라도는 권근의 『예기천건록』이 2회나 간행되었던 반면에 경상도는 『예기천건록』이 아닌 元代 李廉이 집석한 『春秋回通』, 明代 胡謐이 편집한 『庸學指南』, 이황의 『啓蒙傳疑』와 李彥迪의 『九經衍義』와 『奉先雜儀』와 같은 다

48)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한 『소전맹자』, 『소전주역』, 『소전좌전』과 같은 小全類의 서적은 함경도 안변의 『소전논어』, 경기도 수원시 『소전소학』도 들 수 있다. 반면에 전라도에서는 조선전후기를 통틀어 소전류 서적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小全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형태의 서적으로는 본고에서 언급한 책 이외에도 『小全小學』, 『小全大明律』, 『小全左傳』이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고책판유치고』에서도 경상도에서 간행한 『小全毛詩』, 『小全春秋』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한 종류의 심화된 예학서가 간행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동일한 주제의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물력이 많이 소모되는 분량이 많은 서적은 전주와 금산과 같이 출판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 주도했으며, 대문본이나 초집본과 같은 서적은 태인, 고부, 정읍과 같은 소읍에서 주로 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2 간행물의 특징

이 절에서는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간행물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동시기 경상도 지역과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의 간행물과의 대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 당·송 문집의 성행

『고사촬요』에 수록된 총 986종의 간행물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부 225종, 사부 111종, 자부 386종, 집부 260종, 미상 4종이다.⁴⁹⁾ 이 중 전라도는 경부 74종, 사부 38종, 자부 137종, 집부 86종이며, 경상도는 경부 79종, 사부 48종, 자부 145종, 집부 114종으로 두 지역은 집부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집부 중 별집류 120종을 살펴보면 전라도 56종, 경상도 64종으로,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간행한 9종의 서적을 제외하면 단 한 건도 중복되는 서적은 발견되지 않는다.⁵⁰⁾ 이는 곧 조선전기부터 책판목록이 작성되던 1585년 사이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최소 111인을 대상으로 한 문집류가 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총 120종의 문집 중 우리나라 사람(이후 동인이라고 약칭함)의 문집은 80종이며, 중국인 문집은 37종이며, 국적을 알 수 없는 문집은 3종이다. 동인 문집은

49) 김치우(2008), 413-443에 따르면 경부 218종, 사부 118종, 자부 391종, 집부 243종으로 필자의 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50) 중복되는 서적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는 『濳溪集』(함양, 진주), 『懶齋集』(상주, 밀양), 『攄翠軒集』(상주, 고령), 『李相國集』(상주, 의령)이며, 전라도는 『陽村集』(전주, 담양)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모두 간행된 서적은 『忠孝堂遺集』(능성/상주), 『圃隱集』(낙안/永川), 『虛白堂集』(나주/상주), 『黃山谷集』(나주/성주)이다.

경상도가 48종, 전라도가 33종이 간행되었고, 중국인 문집은 경상도가 14종, 전라도가 23종이 간행되었다.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해 중국인 문집 간행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간행한 중국인 문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도의 경우 남원(4회), 전주·나주(각 3회), 광주·금산·순창·운봉(각 2회), 능성·담양·무장·장흥(각 1회) 등 11처에서 23종이 간행되었다. 이곳에서 간행한 문집은 한대의 黃石公, 진대의 陶潛, 당대의 杜牧·李白·白居易(2종⁵¹)·韋應物·韓愈·劉禹錫·孟浩然, 송대의 소식·梅堯臣·黃庭堅·陳與義·陸遊·吳芾·朱熹·眞德秀·陳師道, 원대의 李溥光, 명대 趙弼 등 한-원대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조별로 살펴보면 한대 1인·진대 1인·당대 7인·송대 9인·원대 1인·명대 1인으로, 당·송대 인물의 문집이 중점적으로 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송대 인물의 문집 간행이 왕성하였다.

다음으로 경상도의 경우 상주·진주(각 2회), 경주·대구·밀양·성주·永川·창원·초계·풍기·함안·함천(각 1회) 등 12처를 중심으로 14종의 중국인 문집이 간행되었다. 간행물은 진대의 도잠(2종), 당대의 駱賓王·이백·柳宗元·위응물·두보·한유, 송대의 주희(2종)·황정건·육유, 명대의 羅欽順의 문집이다. 역조별로 살펴보면, 진대 1인·당대 6인·송대 3인·명대 1인이다.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당·송 문인의 저작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대 인물의 문집 간행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는 전라도에 비해 중국인 문집 간행이 저조한 수치를 보임에도 『주자시집』과 『朱晦菴集』과 같은 주희의 시문집을 2차례 간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4.2.2 중국인 法帖의 유행

조선전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수많은 法帖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조선전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유행한 서법서는 元代 조맹부가 쓴 『蘭亭

51) 『香山三體詩』와 『白氏文集』 2종을 말한다.

記』와 『완화유수』, 元代 雪菴 李溥光이 쓴 『雪庵書』, 金代 張汝弼이 쓴 『張汝弼法帖屏風書』, 『岳飛書』, 『磨崖碑』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遂菴親筆』, 『大東書法』, 『金球書』, 『滕王閣』, 『出師表』, 『石峯書』, 『해동명적』, 黃耆老의 『黃孤山書』, 이언적의 『晦齋箴屏風書』 등이 간행되었다. 『귀거래서』, 『적벽부』는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꾸준히 애호되었던 서첩이었다. 남원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초기에 이르는 국내의 역대 명필가들의 필적을 모아놓은 『海東名跡』이 간행되기도 하였지만, 당송 문집 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전기는 중국인 法帖이 유행하였다. 반면에 조선후기로 접어들면 김구, 楊士彥, 한호, 황기로, 이언적 등 조선인 서화의 간행이 증가하는 한편, 18세기에 이르러 국내의 서예가들을 총 망라해놓은 『大東書法』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4.2.3 다양한 千字文의 유통

천자문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眞草千字(고산), 草書千字(구례), 千字(광주, 보성, 장흥), 四字千字(무장), 大字千字(순창), 小千字(무장), 黑千字(동북), 白字千字(남원), 篆千字(금산), 眞草書千字(남원) 등 10종이 넘는 다양한 형태의 천자문이 남원·무장(2회), 금산·고산·구례·광주·보성·동북·장흥·순창(각 1회) 등 10개 처에서 12차례나 간행되었다. 고산·구례·보성·동북·장흥 등 소읍을 중심으로 분량이 적은 천자문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로 가면 大千字(전주, 장흥, 구례, 무안), 篆千字(영광, 좌수영, 우수영, 태인), 韓護千字(구례, 영광, 진산), 千字(남원, 순천, 제주), 草千字(전주 私板) 등 5종이 간행되었다. 간행에 참여한 지역은 전주(2회), 구례(2회), 영광(2회), 장흥, 무안, 태인, 진산, 남원, 순천, 제주 및 좌수영(순천)과 우수영(해남) 등 12개 관서에서 15회 이상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간행처는 조선전기에 비해 많아졌지만 간행물에 있어서는 단조로운 형태를 보인다. 조선후기에 비해 조선전기에 더욱 다양한 출판물이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2.4 다양한 역사서의 간행

4장의 1절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전기에는 주석을 생략한 大文類가 많이 간행되었다. 이 외에도 역사서의 경우 조선후기에는 『綱目』, 『通鑑』, 『史略』 위주의 간행이 이루어진 반면 조선전기에는 유희춘이 저술한 『역대요록』, 唐代 吳兢이 편찬한 『정관정요』, 金堉이 기묘사화에 연루된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 편찬한 『기묘록』, 權近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동국사략』, 明代 張美和가 편찬한 『元史節要』, 『宋鑑』과 같은 주제가 다양한 역사서의 간행을 주목할 수 있다.

4.2.5 기타

지도·지리류 및 기행문과 같은 성격을 띠는 서적의 경우에는 조선후기에 『동국여지승람』, 『昇平誌』, 『耽羅誌』, 각종 지도(『조선지도』, 『친하지도』, 『청구역대국도』) 및 『遊山錄』 등이 간행되었던 반면 조선전기에는 『팔도지도』, 『표해록』, 『朝鮮賦』, 『關東錄』 등 비교적 적은 수가 간행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가 조선후기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조선전기의 간행물 중 눈여겨 볼만한 저작으로 남원에서 간행한 『표해록』과 『조선부』를 손꼽을 수 있다. 『표해록』은 유희춘의 외조부인 최부가 저술한 표류기행문으로 조선문인의 시각에서 명나라를 묘사한 책이고, 『조선부』는 1488년(성종 19)에 董越이 조선에 사신으로 온 후에 기록한 견문록으로 명나라 사신의 눈을 통해 조선을 그린 책이다. 두 책 모두 일본에 유입되어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서적이다. 이 외에 국제 문학교류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蘇世讓이 명나라 사신들과 수창한 시문을 모아서 『東槎集』을 편찬했는데, 이 책은 전주와 순창에서 간행되었다. 『동사집』을 편찬한 소세양은 호남관찰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남원부사 태두남에게 명하여 『조선부』의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⁵²⁾

52) 일본에 전파된 『조선부』에 관해서는 김소희, “『朝鮮賦』의 한중일 간행과 유통,” 『장서각』 33(2015. 4), 121-148을 참조할 수 있다.

병서류의 경우에도 조선전기가 조선후기에 비해 저조한 간행을 보인다. 예컨대 조선전기에는 『陣圖』(전주, 광주, 순천)와 『火砲冊』(광주)을 간행한 사례 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외침을 겪으면서 국방 수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전라도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武經七書와 七書直解, 『三略』, 『歷代將鑑博議』, 『再造藩邦』, 『兵學指南』, 『續兵將圖』 등의 다양한 군사류 서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이들 서적은 주로 완영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밖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左營이 있던 운봉과 우수영이 있던 해남, 제주, 金城山城이 있던 담양, 좌수영이 있던 순천 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5. 맺음말

이 글은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의 출판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조선전기 관서에서의 출판문화의 일면을 들여다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라도에서 간행된 서적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전기에 관서의 규모에 따라 간행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끝으로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만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동시기 경상도에서 간행된 서적 및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과의 상호 대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관서의 간행은 감영이 소재한 전주를 중심으로 도호부인 남원군 순천, 牧인 나주와 광주가 도와 군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발하게 서적을 공급했고, 이외에도 전주부에 소속된 금산군, 나주목에 소속된 무장현, 순천도호부에 소속된 능성현 등이 도호부나 다른 군현에 비해 활발하게 서적을 간행하였다.

둘째, 소읍의 경우 권질이 적은 단권본이나, 주석을 생략한 백문본, 내용을 줄여놓은 절략본, 요점만을 뽑아놓은 초략본 및 간단히 판각이 가능한 범첩류를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셋째,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간행물만의 특징은 경상도에 비해 당·송 문집의 간행이 성행하였고, 조선후기에 비해 중국인 法帖의 간행이 활발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千字文이 유통되었고, 주석이 없는 大文類 서적과 다양한 주제의 역사서가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柳希春. 『眉巖日記』.

『世宗實錄』 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2. 전자자료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고전DB, 『河西全集』 해제.

3. 논문 및 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11.

-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국회도서관보』 20(1983). 47-59.
- 강혜영. “南原地域 印刷文化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2(2005. 12). 5-34.
-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81.
- 김소희. “『朝鮮賦』의 한중일 간행과 유통.” 『장서각』 33(2015. 4). 121-148.
- 김윤식. “『鏤板考』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78.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초판2쇄.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 남권희. “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8(1999. 8). 204-209.
-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고인쇄문화』 8(2001. 11). 219-252.
- 노기춘. “湖南의 地域區分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0(2007. 6). 179-207.
-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1) 全南地域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6(2010. 9). 159-198.
- 안현주.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2). 417-438.
- 안현주.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407-432.
-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2002.
- 옥영정. “南原地域의 木活字印刷 研究.” 『고인쇄문화』 10(2003).
-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書誌學報』 30(2006. 12). 63-88.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2011). 433-470.
- 유기석.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1990.
-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2.

- 이옥금. “朝鮮朝 湖南 寺刹板에 關한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존희. “鮮初 地方統治體制의 整備와 界首官.” 『동국사학』 15·16(1981). 83-124.
-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 선명, 2008.
-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全9冊). 北京: 中華書局, 2004.
- 정형우·윤병태 편.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정형우·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上)·(下)·(補遺·索引)』.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최지선. “조선시대 湖南觀察營本에 關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최명운. “전라북도의 연혁 - 성립 과정과 지명 관명 경성의 변천 -.”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전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0.